



KIA 타이거즈가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8차전에서 5-4 재역전승을 거두며 롯데전 5연패를 탈출했다. 왼쪽부터 홈런을 기록한 KIA 박찬호, 김선빈,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1박2김’ 홈런 광광광...KIA 1위 지켰다

박찬호·김선빈·김도영 홈런포...롯데에 5-4 재역전승 정해영 18세이브로 ‘분위기 반전’...양현종 6이닝 3실점



KIA가 ‘1위’라는 부담감을 딛고 선두를 지켰다.

KIA 타이거즈가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8차전에서 5-4 재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롯데에 5연패를 당하면서 2위 LG 트윈스에 0.5경기 차까지 쫓겼던 상황, KIA는 박찬호, 김선빈, 김도영의 홈런으로 짜릿한 승리를 연출하면서 1위 질주를 이어갔다. 김선빈은 동점 투런과 결승타까지 책임지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1회부터 박찬호의 홈런포가 가동됐다. 박찬호가 롯데 선발 김진욱의 2구째 140km 직구

를 잡아당겨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장식했다. 시즌 3호, 통산 359호이자 개인 두 번째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이었다.

박찬호의 깜짝 홈런이 나왔지만 초반 흐름은 좋지 못했다.

전날에도 수비에 울었던 KIA가 3회 다시 한번 아쉬운 수비로 실점을 했다.

1-0으로 앞선 3회초 송성빈의 타구가 외야로 멀리 뻗었고, 우익수 이우성의 키를 넘어가면서 3루타가 됐다. 이어 박승욱의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향했다. 소크라테스가 공을 잃으면서 간발의 차이로 포구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양현종의 실점이 올랐다.

이후 양현종이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손호영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1-2가 됐다.

5회에는 롯데 손성빈이 양현종을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롯데가 2점 차로 달아났다.

이번에는 KIA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6회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나성범의 좌익수 플라이로 원아웃, 롯데 투수가 김진욱에서 최이준으로 교체됐다.

이우성이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김선빈이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최이준의 150km 직구를 좌측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맞는 순간 홈런이었던 시원한 타구로 김선빈은 시즌 5호포를 장식했다.

하지만 8회, 다시 롯데의 홈런이 나왔다. 10일의 재충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좌완 광도규가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손호영과의 승부에서 5구째 투심을 공략당하면서 역전 솔로포를 허용했다.

광도규는 이어 레이에스에게 우전안타까지 맞았지만 나성범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기싸움을 펼쳤다.

전미르로 투수가 교체된 8회말 KIA가 뒷심을 발휘했다.

1사에서 김도영이 전미르의 6구째 130km 커브를 좌측 펜스 밖으로 보내면서 승부를 4-4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전날 아쉬운 실책으로 흐름을 내뒀던 나성범이 좌측간 2루타를 날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우성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은 됐지만 김선빈이 초구에 우중간을 가르면서 나성범의 대주자로 들어갔던 홍중표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5-4를 만든 KIA는 9회 마무리 정해영을 투입했다.

대타 김민석을 7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잡은 정해영이 이정훈도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어진 유강남과의 승부. 3개의 볼이 연달아 들어갔지만 정해영은 6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롯데전 연패를 끊고 시즌 18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KIA는 전날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9위 롯데에 5연패를 당했다. 아쉬운 수비 모습을 보여준 나성범을 경기 도중 교체했던 이범호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고참들과 미팅도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빈은 “롯데에 5연패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 분위기가 침체 됐다. 오늘 이겨서 분위기가 살아났을 것 같다. 감독님께서 고참들에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분위기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며 “주자가 3루에 있어서 이 주자만 홈에 불러들이자는 생각이었는데 정타가 나왔다. 치는 순간 넘어가는 걸 알았다. 기분이 좋았다. 또 홈런을 쳐서 다음 타석에서 자신감이 있었다. 나까지만 타석에 와라고 생각했다. 성범이가 나갈 때 ‘됐다’고 생각했다”고 동점 홈런, 결승타 상황을 이야기했다.

김선빈은 또 “1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다. 1위를 계속 지켜와서 선수들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홈에서 경기를 지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다”면서 “선수를 모두 매 경기 이기려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KIA 양현종은 2회 김민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통산 2000탈삼진 기록을 완성했다. ‘한화 레전드’ 송진우에 이어 KBO리그 통산 두 번째 기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 2000탈삼진 ‘역대 두 번째’

2007년 4월 12일 첫 탈삼진 이후 17년만에 대기록 달성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2000탈삼진 고지를 밟았다.

KIA 양현종은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8차전 선발로 나와 2회 1사에서 김민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2000번째 탈삼진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1998탈삼진을 기록했던 양현종은 1회 3개의 직구로 3번 타자 손호영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1999번째 탈삼진을 장식했다. 이어 2회 김민성을 상대로 5구 승부 끝에 탈삼진을 추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 2000탈삼진 기록을 장식했다.

양현종에 앞서 2000탈삼진을 달성한 선수는 ‘한화 레전드’ 송진우밖에 없다. 송진우는 2048탈삼진을 남기고 은퇴했다.

양현종의 탈삼진 역사는 2007년 4월 12일 시작됐다.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와의 경기에서 정성훈을 상대로 프로 첫 탈삼진을 장식했다.

1000번째 탈삼진 상대는 나성범이다. 2016년 7월 24일 홈경기에서 당시 NC 소속이었던 나성범을 상대로 1000탈삼진을 채웠다.

1500탈삼진 기록은 2019년 8월 28일 광주 삼

성전에서 작성됐다. 양현종은 삼성 박계범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1500번째 탈삼진을 뽑아냈다.

탈삼진 대기록을 작성한 양현종은 승패는 기록하지 못했다.

양현종은 1회 1사에서 고승민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도루를 막아내며 투아웃을 만들었다. 손호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1회를 마무리한 양현종은 1-0으로 앞선 2회 1사에서 나성범에게 이날 첫 안타를 맞았지만 김민성을 헛스윙 삼진, 이정훈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하지만 3회 외야에서 아쉬운 수비가 이어지면서 실점을 했다.

선두타자 손성빈의 타구가 우익수 키를 넘으면서 3루타가 됐고, 박승욱의 타구를 쫓던 소크라테스가 공을 잃으면서 1타점 2루타가 됐다. 양현종은 운동화와 고승민을 2루수 직선타와 1루 땅볼로 처리했지만 손호영에게 우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4회 첫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양현종은 5회 선두타자 손성빈에게 솔로포를 내줬다. 3볼 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5구째 140km 직구가 중앙 담장을 넘어가면서 1-3이 됐다. 양현종은 이후 세 타자를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6회에는 1루수 포구



KIA 양현종(왼쪽)이 5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2000탈삼진을 기록한 뒤 이범호 감독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추가 진루를 허용하지 않고 이닝을 끝냈다.

1-3에서 양현종의 등판이 마무리된 뒤 6회말 KIA 타선이 움직였다.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했고, 김선빈이 바뀐 투수 최이준을 상대로 투런포

를 날렸다. 3-3 동점까지 성공했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하면서 양현종은 승패를 남기지 못했다.

한편 KIA는 3-4로 뒤진 8회말 타진 김도영의 동점 솔로포와 김선빈의 적시타로 5-4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병훈 “올림픽 출전권 딸 것”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안병훈(32)이 올해 파리올림픽 출전 의지를 내비쳤다.

안병훈은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6일 개막한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 달러)에 브렌던 토트(미국)와 함께 1라운드 경기를 갖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14개 대회에서 준우승 한 번을 포함해 10위 안에 5차례 진입한 안병훈은 올해 파리올림픽 출전을 향한 각오를 전했다.

안병훈은 “나에게 올림픽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의미”라며 “부모님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셨던 사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안병훈은 ‘한-중 탁구 컵’로 유명한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의 아들이다.

안재형은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자오즈민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탁구 여자 복식 은메달, 단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병훈은 “올해 올림픽에 꼭 나가셨으면 하고, 가능하면 메달도 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파리올림픽 남자 골프는 17일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나라별 상위 2명이 출전권을 획득한다.

현재 안병훈은 세계 랭킹 26위로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주형(22위)에 이어 두 번째다. 임성재가 32위로 그다음이다.

/연남뉴스